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중 한국 고문헌에 대한 고찰*

Investigation of the Korean Rare Books on
The Catalogue of Chinese Rare books Owned by th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朴 現 圭 (Park, Hyun-kyu)**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
| 2.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 중 한국 고문헌의 서품 |
| 중 한국 고문헌의 분류 | 5. 결 론 |
| 3.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 <참고문헌> |
| 중 한국 고문헌의 출처 | |

< 초 록 >

본고는 중국과학원도서관에 소장된 선본서목, 즉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을 실사하여 소장본의 분류양상, 소장경로, 서품가치 등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의 장서 분류는 경부가 22종 111책, 사부가 41종 110책, 자부가 21종 83책, 집부가 59종 325책, 지부가 1종 1책, 총 144종 630책이 있다. 이밖에 보통선장본으로 분류된 한국 고문헌이 3백여 종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의 소장 출처는 크게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 산하 북경인문과학연구소 舊藏本 130종과 중국과학원도서관이 1956년부터 1963년 사이 북경 등지에서 구입한 한국 고문헌 14종으로 나누어진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 가운데 『衍山海經證註』, 『金氏家傳』, 『養眞齋先生禮說』 등 국내에서 일실된 책자, 『明義錄』, 『日省錄』, 『御製添刊大訓』, 『太學恩杯詩集』, 『文史咀英』,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集』, 『現行西方經』 등 국내외 명인들이 소장했던 귀중본이다.

要語: 中國科學院圖書館, 善本書目, 韓國古文獻, 東方文化事業總委員會 北京人文科學研究所,
대만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傅斯年圖書館

* 順天鄉大學校 學術研究論文.

** 順天鄉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jongyeop99@hanmail.net or parkhk@sch.ac.kr)

투고일: 2020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 202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2일
서지학연구, 제84집, 121-136,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121>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rare books based on *The catalogue of Chinese rare books owned by th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and analyz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iterature, the historical traces of possession, the value of literature to possess, etc.

The Korean rare books among *the catalogue of Chinese rare books owned by th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were classified as follows: a total of 144 volumes and 630 titles, including 22 volumes and 111 titles in Gyeongbu (Jingbu; 經部), 41 volumes and 110 titles in Sabu (Shibu; 史部), 21 volumes and 83 titles in Jabu (Zibu; 子部), 59 volumes and 324 titles in Jibbu (Jibu; 集部), and 1 volume and 1 title in Jibu (Zhibu; 志部). Besides, th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owns a lot of Korean rare books classified as Seonjangbon (線裝本: a book bound with thread). Those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130 volumes, owned by the Beijing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General Committee of Oriental Culture (東方文化事業總委員會 北京人文科學研究所) and the 14 volumes, acquired within the territory of China between 1956 and 1963.

A lot of Korean rare books, which are highly valued in its contents, are included in *the catalogue of Chinese rare books owned by th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For instance, *Yeon sanhae gyeong jeungju* (衍山海經證註: Descriptive Book of Mount Geumgang (金剛山)), *Gimssi gajeon* (金氏家傳: a story book of the Kim's family), *Yangjin jae seonsaeng lyeseol* (養眞齋先生禮說: a theory of the proprieties by Mr. Yang Jin-je) are completely lost and never found in Korea, and *Myeongui log* (明義錄: a book describing a rightness), *Ilseong log* (日省錄: a diary of the kings in Joseon), *Joje cheomgan daehun* (御製添刊大訓: a royal edict by King Youngjo (英祖)), *Taehag eunbae sijib* (太學恩杯詩集: a collection of poems by young scholars), *Munsa jeoyeong* (文史咀英: a collection of works by both Ouyang Xiu and Su Shih of Song Dynasty), *Wangjangwon jibju bunlyu dongpa seonsaeng sijib*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集: The extra edition for a collection of poems by Su Shih (蘇軾) that was described and classified by Wang Jangwon (王狀元)), *Hyeonhaeng seobang-gyeong* (現行西方經: A book on the belief in pure land) are the books owned by famous people at home and abroad.

Key words: National Science Library, Chinese Academy of Sciences(中國科學院圖書館), *The catalogue of Chinese rare books owned by th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Korean Rare Books(韓國古文獻), Beijing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General Committee of Oriental Culture(東方文化事業總委員會 北京人文科學研究所), Fu Ssu-nien Library,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傅斯年圖書館)

1. 서론

동아시아 권역에 속하는 한국과 중국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헌 교류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했다. 양국 간에 이루어진 문헌 교류 양상을 보면 상당수가 양국 인사들에 의해 직접 유입되었고, 드물지만 일본열도 등 제삼국을 통해 우회해서 유입되기도 했다. 해외 한국학 발전은 한국학을 풍부하게 살찌우고 해외로 널리 알리는데 좋은 자양분 역할을 해준다. 오늘날 중국 지역에는 해외 한국학연구의 커다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많은 양의 한국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여러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조사하는 작업은 바로 해외 한국학을 발전시키는 좋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은 중국 경내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술 등 자연과학 분야의 최고 학술기구이다. 1949년 10월 중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되었다. 오늘날 북경 三里河路에 본부를 두고 중국 전역에 12개 분원을 가지고 있다. 1950년 4월에 중국과학원 산하에 도서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圖書管理處를 두었다. 1951년 2월에 中國科學院圖書館으로 바뀌었고, 1985년 11월에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9년 12월에 새로운 中國科學院圖書館檔案館 건물을 착공하여 2001년 9월에 완공했으며 주소는 북경 中關村 北四環西路 33號이다.

필자는 학창 시절에 대만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들을 일괄 조사하여 서목을 편찬했고,¹⁾ 이후 중국대륙의 몇몇 도서관에서 국내에 일실되거나 희귀한 한국 고문헌을 위주로 조사했다. 2000년 4월에 연구년을 활용하여 북경 北三環西路에 소재한 임시 중국과학원도서관을 찾았다. 당시 중국과학원 연구원 羅琳의 협조를 받아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을 전면 실사한 적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중국과학원도서관을 방문하여 부족한 것을 보완작업을 행했다. 본고에서는 중국과학원도서관 선본서목, 즉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을 대상으로 해당 도서의 분류양상, 소장경로, 서품 가치 등에 대해 분석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 고문헌은 한국지역에서 간행된 한국본 고문헌과 외국지역에서 간행된 한국인 편저의 고문헌을 모두 포함한다.

2.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중 한국 고문헌의 분류

본 절에서는 『중국어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열거된 한국 고문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978년에 중국과학원도서관은 관내에 소장된 선본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1993년 9월에 마쳤다.

1) 朴現圭, 『臺灣公藏韓國古書籍聯合書目』(臺北: 文史哲出版社, 1991), 1-370.

1994년 3월에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을 출간했다.²⁾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열거된 중문 선본은 經部 747조(條), 史部 1,809조, 子部 1745조, 集部 3,106조, 叢部 196조, 志部 893조 등 총 8,496조이다.³⁾ 중국 각 도서관은 통상 고문헌을 선본과 보통본 선장으로 나뉜다. 중국과학원도서관에 보통본 선장으로 분류된 중문 고문헌이 약 50만 권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의 장서 분류는 기본적으로 1977년~1978년에 정한 『中國古籍善本總目錄』의 방식을 따랐다. 즉, 경, 사, 자, 집 등 4부로 나누는 전통방식에다 여러 책자를 한꺼번에 엮은 叢部와 각 지역의 제방 사항을 기술한 志部를 따로 떼어내어 총 6부로 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을 해당 서목의 장서분류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표 1>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 중 한국고문헌의 장서분류

| 분류 | | 종수 | 동종판본 | 실제종수 | 책수 |
|-----|-------|-----|------|------|-----|
| 經部 | 禮類 | 19 | -3 | 16 | 98 |
| | 四書類 | 1 | | 1 | 9 |
| | 群經總義類 | 1 | | 1 | 3 |
| | 小學類 | 1 | | 1 | 1 |
| 소계 | | 22 | -3 | 19 | 111 |
| 史部 | 編年類 | 2 | | 2 | 19 |
| | 紀事本末類 | 4 | | 4 | 14 |
| | 雜史類 | 6 | -1 | 5 | 15 |
| | 傳記類 | 22 | -1 | 21 | 36 |
| | 詔令奏議類 | 3 | | 3 | 3 |
| | 正書類 | 3 | | 3 | 22 |
| 地理類 | 1 | | 1 | 1 | |
| 소계 | | 41 | -2 | 39 | 110 |
| 子部 | 儒家類 | 7 | | 7 | 21 |
| | 兵家類 | 1 | | 1 | 7 |
| | 農家類 | 1 | | 1 | 1 |
| | 醫家類 | 3 | | 3 | 40 |
| | 雜家類 | 5 | | 5 | 9 |
| | 小說家類 | 1 | | 1 | 1 |
| | 類書類 | 2 | | 2 | 3 |
| | 宗教類 | 1 | | 1 | 1 |
| 소계 | | 21 | 0 | 21 | 83 |
| 集部 | 總集類 | 16 | -4 | 14 | 54 |
| | 別集類 | 41 | -2 | 46 | 269 |
| | 詩文評類 | 2 | -1 | 1 | 2 |
| 소계 | | 59 | -7 | 52 | 325 |
| 叢部 | | 0 | | 0 | 0 |
| 소계 | | 0 | | 0 | 0 |
| 志部 | 朝鮮 | 1 | | 1 | 1 |
| 소계 | | 1 | | 1 | 1 |
| 총계 | | 144 | -12 | 132 | 630 |

2) 中國科學院圖書館編,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北京: 科學出版社, 1993), 1.

3) 中國科學院圖書館編(1993), 1.

이상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의 종수는 경부가 22종, 사부가 41종, 자부가 21종, 집부가 59종, 지부가 1종 등 총 144종이다. 이것들을 해당 도서관의 동종판본 12종을 제외하면 실제 판본의 종수는 132종이다. 이것들을 책수로 적어보면 경부가 111책, 사부가 110책, 자부가 83책, 집부가 325책, 지부가 1책 등 총 630책이다. 이밖에 중국과학원도서관에는 보통 선장본으로 분류된 한국 고문헌이 3백여 종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의 편찬방식은 기본적으로 『중국고적선본서총목』을 따랐다. 중국과학원도서관이 정한 선본 기준을 적어보면 대략 청 건륭 연간 이전본을 수록 시기의 하한선으로 삼고, 또 건륭 이후의 문헌이라도 역사문물, 학술자료, 예술대표 등을 갖춘 고문헌을 선본으로 포함시켰다.⁴⁾ 다만 일부 고문헌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한 점도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고문헌의 사례를 들어본다. 『濟衆新編』은 조선 정조 때 內醫院首醫 康命吉이 편찬한 의학서로 일찍이 중국에 전해졌고, 또한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했다. 중국과학원도서관에 소장된 조선판 『제중신편』은 3종이 있는데, 모두 正祖23年(1799) 刊本이다. 그런데 子490/0084본 1종만 선본으로 분류하고, 子490/047본과 子490/057본 2종은 보통선장본으로 분류해놓았다. 특히 子490/047본은 중국 명장서가인 潘祖蔭의 舊藏本이다.

또 『皇華集』은 세종조부터 인조조까지 조선에 들어온 명 문인출신의 사신들이 조선 인사들과 수창한 시문들을 엮은 관찬서이다. 조선 조정은 매번 명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외교차원에서 『황화집』을 다량 인출하여 이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래서인지 중국 지역 내에 조선판 『황화집』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꽤나 보인다. 필자가 보았던 도서관들, 즉 중국국가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 청화대학도서관, 절강성도서관, 대만국가도서관 등은 모두 조선판 『황화집』을 선본으로 분류해놓고 있는데, 중국과학원도서관은 선본과 보통 선장본으로 뒤섞어 분류해놓고 있어 자못 혼돈스럽다. 중국과학원도서관에 소장된 조선판 『황화집』 3종 가운데 集312.5/002.1본은 선본으로, 集312.5/002.2본, 260274-9본은 보통 선장본으로 분류해놓았다.

3.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중 한국 고문헌의 출처

본 절에서는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 중 한국 고문헌이 어떤 경로를 거쳐 들어왔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에 관해 중국과학원도서관에서 고문헌 등록책, 구입책 등 구체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구서목과 각 도서에 찍힌 인장, 지기 등을 통해 그 윤곽을 파악해낼 수 있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의 서지사항을 조사해보면 그 출처를 짐작할 수 있다.

4) 中國科學院圖書館編(1993), 1.

<표 2>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 중 한국고문헌의 장서출처

| 출처 | 종수 | 비율(%) |
|--------------|-----|--------|
| 東方文化事業總委員會 | 130 | 90.28 |
| 중국과학원도서관 수집본 | 14 | 9.72 |
| 총계 | 144 | 100.00 |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 가운데 東方文化事業總委員會 구장본이 130종으로 전체량의 90.28%를 차지하고, 중국과학원도서관 수집본이 14종으로 전체량의 9.72%를 차지한다. 동방사업총위원회장본에는 「東方文化/事業總委/員會所藏/圖書印」(주방인), 「東方文化事/業總委員會/所藏圖書印」(백방인)이 찍혀있다. 중국과학원도서관 수집본에는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 인장이 없고, 「中國科/學院圖/書館藏」(주방인)이 찍혀있다.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는 1925년 5월에 일본이 庚子賠款의 일부 자금 6,514만 엔을 떼내어 대중국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자 중국 경내에 세운 친일본 학술연구위원회이다. 경자배관은 1900년에 청나라가 의화단사건으로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게 지급한 배상금이다. 일본측 위원은 入澤達吉, 服部宇之吉, 狩野直喜 등 8명, 중국측 위원은 柯劭忞, 湯中, 王樹枏 등 11명이다. 1926년 7월에 북평(훗날 북경)에 人文科學研究所와 도서관, 상해에 自然科學研究所를 각각 설립했다.

1947년에 中國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가 북경인문과학연구소의 장서들을 접수했다. 중앙연구원은 1928년 6월에 남경에서 개원한 민국 정부의 학술연구기관이고, 역사어언연구소는 동년 10월에 廣州에서 개원한 산하 연구소이다. 초대소장은 傅斯年이다. 1949년에 국민국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자, 중앙연구원의 모든 기관은 정부와 함께 따라 들어와 桃園縣 楊梅鎮에 정착했다. 역사어언연구소는 귀중본 위주의 장서들을 상자에 싣고 선박에 탑재하여 대만으로 옮겼다. 1954년에 중앙연구원이 대북 南港으로 이주했고, 1960년에 역사어언연구소가 원내 부지에 傅斯年圖書館을 건립했다.

한편 중국인민정부가 설립된 직후 국민당정부가 남겨둔 옛 북경인문과학연구소의 장서들을 모두 중국과학원으로 이관시켰다. 1950년 4월에 중국과학원은 이들 도서를 관리할 도서관리처를 설치했고, 1951년 2월에 중국과학원도서관으로 개명했다. 중국 과학원도서관과 대만 역사어언연구소 부사년도서관에 소장된 선본 서적은 옛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가 수집했던 고문헌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아래에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目錄』과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屬目』에 열거된 한국 고문헌을 정리해본다.

<표 3>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目錄』중 한국고문헌 목록

| 서목 | 서명 | 서지 | 소장처 | |
|------------|-----------------------------|--|-----------------------|---------|
| 경부 | 全韻玉篇 | 2권, 不著撰人名氏, 朝鮮刊本, 2책 | 傅斯年(선본) | |
| | 龍龜手鏡 | 4권, 闕卷2, 遼釋行均撰日本昭和四年京城帝國大學刊本, 2책 | | |
| 사부 | 麗史提綱 | 23권, 朝鮮俞樾撰, 朝鮮刊本, 12책 | 傅斯年(선본) | |
| | 小華外史 | 8권, 別編2권, 續編2권, 朝鮮吳慶民撰, 朝鮮刊本, 6책 | 傅斯年(선본) | |
| | 國朝寶鑑 | 82권, 朝鮮金尙喆等奉敕撰, 趙寅永等奉教續撰, 朝鮮憲宗十四年刊本, 26책 | 傅斯年(선본) | |
| | 中京誌 | 12권, 不著撰人名氏, 朝鮮刊本, 6책 | 傅斯年(선본) | |
| | 東史會綱 | 21권, 不著撰人名氏, 朝鮮刊本, 9책 | 傅斯年(선본) | |
| | 關里志, 增朝鮮關里志 | 13권, 增朝鮮關里志2권, 明陳鎬撰, 東國關里志, 朝鮮孔明烈撰, 朝鮮刊本, 8책 | 傅斯年(선본) | |
| | 墨池揀金 | 附錄1卷, 不著撰人名氏, 朝鮮鈔本, 2책 | 傅斯年(선본) | |
| | 松雲大師奮忠紆難錄 | 朝鮮釋南鵬撰, 朝鮮刊本, 1책 | 傅斯年(선본) | |
| | 宣和奉使高麗圖經, 增鷄林類事·朝鮮賦 | 40권, 宋徐兢撰, 朝鮮抄本 | 傅斯年(선본) | |
| | 北漢誌 | 1권, 朝鮮釋聖能撰, 朝鮮刊本, 1책 | 傅斯年(선본) | |
| | 成川志 | 2권, 不著撰人名氏, 朝鮮刊本, 1책 | | |
| | 江華府志 | 2권, 朝鮮金魯鎮撰, 朝鮮刊本, 1책 | 傅斯年(선본) | |
| | 海東諸國記 | 不分卷, 朝鮮申叔舟撰, 鈔本 ⁵⁾ 4책 | 傅斯年(선본) | |
| | 通文館志 | 11권, 朝鮮金慶門撰, 光緒二十四年朝鮮刊本, 5책 | 과학원(보통본) | |
| | 皇明制書 | 2권, 不著撰人名氏, 朝鮮刊本, 1책 | 傅斯年(선본) | |
| | 大典條例 | 10권, 朝鮮洪鐘等奉勅撰, 朝鮮刊本, 10책 | | |
| | 朝鮮圖書解題 | 朝鮮總督府編, 日本大正八年鉛印本 | 과학원(보통본) | |
| | 자부 | 增修無冤錄大全 | 2권, 元王與撰, 朝鮮舊鈔本, 1책 | 傅斯年(선본) |
| | | 東醫寶鑑 | 23권, 朝鮮許浚撰, 朝鮮刊本, 25책 | 과학원(선본) |
| 濟衆新編 | | 8권, 朝鮮康命吉撰, 朝鮮刊本, 5책 | 과학원(보통본) | |
| 一切經音義 | | 100권, 唐釋慧琳撰, 日本昭和六年印高麗開成間刊本, 25책 | 과학원(보통본) | |
| 藏經音義隨函錄 | | 後晉釋可洪撰, 日本昭和十一年影印高麗海印寺刊本, 30책 | 과학원(보통본) | |
| 盡業記 | | 不分卷, 朝鮮柳得恭撰, ⁶⁾ 4책 | 과학원(보통본) | |
| 집부 | 增刊校正王狀元集注分類東坡先生詩 | 23권, 宋蘇軾撰, 朝鮮舊刊本, 14책 | 과학원(선본) | |
| | 四溟堂大師集 | 朝鮮釋惟政撰, 明萬曆四十年朝鮮刊本, 1책 | 과학원(선본) | |
| | 皇華集 | 5권, 明薛廷寵等撰, 朝鮮成世昌編, 明嘉靖朝鮮刊本, 4책 | 과학원(선본) | |
| | 皇華集 | 6권, 明朱之蕃等撰, 朝鮮申欽編, 明萬曆三十四年朝鮮刊本, 6책 | 과학원(보통본) | |
| | 表忠祠題詠 | 1권, 不著撰人名氏, 朝鮮刊本, 1책 | 과학원(선본) | |
| | 昭代風謠 | 9권 別集 1권, 朝鮮李宜顯編, 朝鮮刊本, 2책 | 과학원(선본) | |
| | 風謠三選 | 7권, 朝鮮劉佐建等編, ⁷⁾ 咸豐七年朝鮮刊本, 3책 | 과학원(선본) | |
| | 文史咀英 | 8권, 部著編人名氏, 朝鮮東二樓活字本, 4책 | 과학원(선본) | |
| | 昭義新編 | 8권 續編 2권, 不著編人名氏, 朝鮮刊本, 5책 | 과학원(보통본) | |
| 永嘉三怡集 | 3권, 朝鮮洪奭等撰, 李正履編, 朝鮮活字本, 2책 | 과학원(선본) | | |
| [부록 한국인저서] | | | | |
| 사부 | 名山諸勝一覽記增朝鮮國山川 | 明慎蒙撰 ⁸⁾ 明萬曆刊本, 20책 | 傅斯年(선본) | |
| |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 | 日本藤田豊八撰, ⁹⁾ 宣統二年鉛印本, 1책 | 과학원(보통본) | |
| | 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 | 日本藤田豊八撰, 民國二十年鉛印本, 1책 | 과학원(보통본) | |
| | 朝鮮地理小志 | 朝鮮李清江撰, 光緒十一年同文館鉛印本, 1책 ¹⁰⁾ | 과학원(보통본) | |
| | 重訂滿洲祭神祭天典禮 | 金九經編, 民國二十四年鉛印本, 3책 | 과학원(보통본) | |
| | 新編諸宗教藏總錄 | 3권, 高麗義天編, 本所鈔本, 1책 | | |

<표 4>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續目』 중 한국고문헌 목록

| 서목 | 서명 | 서지 | 소장처 |
|------------|-------|--|----------|
| 집부 | 月沙先生集 | 63권, 附錄 5권, 別集 7권, 朝鮮李廷龜撰, 明萬曆間朝鮮刊本, 22책 | 과학원(선본) |
| | 鳳棲集 | 8권, 朝鮮俞華煥撰, 朝鮮雲養山房石印本, 4책 | 과학원(보통본) |
| [부록 한국인저서] | | | |
| 집부 | 皇明遺民傳 | 7권, 朝鮮不著撰人名氏, 民國二十五年北京大學影印如皋魏建功藏鈔本, 3책 | 과학원(보통본) |
| | 恩誦堂集 | 10권, 朝鮮李尙迪撰, 道光二十七年刊本, 1책 ¹¹⁾ | 과학원(보통본) |

『북경인문과학연구소장서목록』에 열거된 한국 고문헌 가운데 한국지역에서 간행된 고문헌은 총 35종이고, 해외지역에서 간행된 한국인 편저자의 고문헌은 6종이다. 『북경인문과학연구소장서속목』에 열거된 한국 고문헌 가운데 한국지역에서 간행된 고문헌은 총 2종이고, 해외지역에서 간행된 한국인 편저자의 고문헌은 2종이다.

『북경인문과학연구소장서목록』과 『북경인문과학연구소장서속목』에 열거된 한국 고문헌 가운데 대만 역사어언연구소 부사년도서관에 소장된 책자는 16부이다. 이밖에 부사년도서관에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 인장이 찍혀있는 『中朝文字畧』이 있으나, 상기 서목에 보이지 않는다. 또 『북경인문과학연구소장서목록』과 『북경인문과학연구소장서속목』에 열거된 한국 고문헌 가운데 중국과학원 도서관에 소장된 책자는 선본 10종, 보통 선장본 15종, 총 25종이다.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가 한국 고문헌을 어떻게 수집했을까?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해당 서적의 장서인이나 목기를 통해 그 수집지역과 경로를 개략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

첫째, 민국 시기에 중국대륙에 남아있던 서적들이다. 『文史咀英』은 청 도광 연간에 劉喜海가 조선 趙秉龜로부터 받은 책자이고, 『濟衆新編』(子490/047분)은 청말 장서가 潘祖蔭이 소장했던 책자이다. 또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集』은 청 광서 연간에 일본에 갔던 傅雲龍이 일본열도에서 구한 책자이다.

둘째, 민국 시기에 한반도에서 유입한 서적들이다.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 수집본 가운데 대다수 한국 고문헌이 여기에 속한다.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가 친일본기관이다. 당시 일제통치하에 놓여있

5) 傅斯年圖書館에 소장된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 수집본 『海東諸國記』는 鈔本이 아니고, 1933년 조선사편수회 영인본임.
 6)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目錄』에는 『蟲葉記』의 저자 '李德懋'를 '柳得恭'으로 오기했음.
 7)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目錄』에는 『風謠三選』의 편자 '劉在建'을 '劉佐建'으로 오기했음.
 8) 부록 『朝鮮國山川』의 원 책명은 『朝鮮志』이고, 저자는 蘇世讓임.
 9) 『往五天竺國傳』의 저자는 慧超임.
 10) 『朝鮮地理小志』의 원 책명은 『擇里志』이고, 저자는 李重煥임.
 11) 『恩誦堂集』은 북경에서 간행된 후 책판을 조선에 가져와서 계속 인출하였음.

던 한반도 소재의 고서적을 수집하기에 좋은 외적 환경을 가졌다.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는 주로 한국 소재 서적상을 통해 수집했고, 일부는 주한국 기관을 통해 수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장본에는 간혹 『駐劄朝鮮釜山理事府』(무란주장인)가 찍혀있는 한국 고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제 총독부 산하에 각 중요 거점지마다 理事府를 두었는데, 釜山理事府는 그 중의 한 곳이다. 부산이사부 수집본으로는 중국과학원도서관 선본에 『表忠祠題咏』, 『昭代風謠』, 『四溟堂大師集』 등 3종이 있고, 대만 역사어언연구소 부산년도서관에 『關里志』, 『松雲大師奮忠紆難錄』, 『宣和奉使高麗圖經』, 『中朝文字合璧』, 『北漢誌』 등 5종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학원도서관 수집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과학원수집본에는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 인장이 없고, 『中國科/學院圖/書館藏』(주방인)이 찍혀있다. 이들 서적 가운데 간혹 책자에 입관일, 판매처, 수가표 등 표기나 첩지가 붙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 중 한국고문헌의 수집본 출처

| 책명 | 입관일 | 판매처 |
|-----------------|----------|---------|
| 養眞齋先生禮說 | 63.08.24 | |
| 國語(史220/182) | | |
| 國語(史220.1/253) | 62.09.03 | 北京市中國書店 |
| 栗谷李先生事略 | 56.04.27 | 萃文齋 |
| 金氏家傳 | 56.04.27 | 萃文齋 |
| 擊蒙要訣 | 58.06.04 | 翰文齋 |
| 濟衆新編(子490/0084) | | |
| 現行西方經 | 61.07.18 | |
| 大家文會 | | |
| 晦軒先生詩文鈔 | 56.04.27 | 萃文齋 |
| 鄭圃隱先生詩鈔 | 56.04.27 | 萃文齋 |
| 滄洲集 | | 北京中國書店 |
| 戒懼菴集 | 59.11.09 | 東雅堂 |
| 衍山海經證註 | 61.06.17 | |

상기 도표를 보면 중국과학원도서관에서 한국 고문헌을 구입한 시기는 1956년부터 1963년 사이이다. 구입처는 북경과 천진에 소재한 고서점이다. 翰文齋는 북경 琉璃廠路 남쪽에 소재한 고서점이다. 점주 韓俊華는 하북 衡水 사람이다. 1886년(광서 12)에 개업했고, 아들 韓林蔚이 이어받아 50여년 경영했다.¹²⁾ 송간본 『蘇文忠奏議』, 『居士集』, 『資治通鑑』 등, 원간본 『通鑑續編』, 『王氏玉海』 등 귀중본을 많이 팔았다. 1958년에 중국서점으로 합병되었다.¹³⁾ 東雅堂은 북경 유리창에 소재한

12) 孫殿起, 『琉璃廠小志』(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2), 116.

13) 馬建農, 『琉璃廠』(北京: 北京出版集團公司·北京出版社, 2006), 60.

고서점이다. 점주 張長起는 하북 深縣 사람이다. 1939년에 개점했다.¹⁴⁾ 萃文齋는 북경 琉璃廠小西南園路 동쪽에 소재한 고서점이다. 점주 雛竹筠은 하북 東鹿 사람이다. 1920년경에 심양에서 개설했고, 1946년에 북경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한국 고문헌을 많이 팔았다. 1958년에 중국서점으로 합병되었다.¹⁵⁾

중국과학원도서관수집본 한국 고문헌은 대다수 민국 이전에 중국대륙으로 들어갔던 서적이고, 일부는 민국 시기에 중국 대륙에 들어갔던 서적이다. 『栗谷李先生事略』, 『金氏家傳』, 『晦軒先生詩文鈔』, 『鄭圃隱先生詩鈔』 등 4부는 청 광서 연간에 조선 金秉善 부자가 청 陳福綬에게 보냈던 책자이다. 진복수 소장본은 훗날 외부로 유출되어 유리창 책문재에 들어갔다. 1956년에 중국과학원도서관이 『陳福綬遺稿』 등 다른 장서와 함께 일괄 구입했다. 『衍山海經證註』는 청 명장서가 周厚培의 小嫻僊館이 소장하고, 민국 판본학자 王鐸이 발문한 책자이다. 『現行西方經』은 조선사편수회 간사와 만주국 建國大學 교수로 지낸 일본 稻葉君山이 조선에서 구하여 중국 대륙으로 가져갔다. 稻葉君山 사후에 중국 대륙에 남긴 책자는 거의가 요녕성도서관에 들어갔는데, 일부 책자는 외부에 유출되었다.

4.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중 한국 고문헌의 서품

본 절에서는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의 소장 가치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국내에 일실된 책자부터 적어본다. 『衍山海經證註』는 1820년(순조 20)에 洪義浩가 금강산을 기행하면서 지은 시편들을 아들 洪義福이 상세한 주석을 달아 정리한 수고본이다. 당시 금강산 유람에 洪義祖, 홍희복도 함께 갔다.¹⁶⁾ 책자의 내표제에 『溟嶽光焰/澹寧先生遊錄/衍山海經證註/雲岬樓繕本』이라고 적었다. 선본목록에서는 저자를 홍의호의 호를 따서 洪澹寧이라고 적었다. 홍의호는 정조, 순조조의 문신이다. 1803년(순조 3)에 사은부사, 1815년(순조 15)에 동지정사, 1823년(순조 23) 동지정사가 되어 연경(북경)을 다녀갔다. 홍의호가 마지막 연행에 나섰을 때 청 李璋煜과 陳用光을 만나 본 책자를 보여주고 서문을 구하였다. 이장옥은 산동 諸城 사람으로 刑部主事, 廣東布政司를 역임했고, 또 연경에 들어온 李肇源, 金魯敬, 金正喜, 金命喜, 洪奭周, 韓弼教, 朴思浩 등 많은 조선 인사들과 교유했다. 진용광은 강서 新城 사람으로 翰林院侍講學士를 지냈다. 진용광 서문 끝에 『學士/之章』(백방인)을 찍어놓았다.

14) 孫殿起(1982), 134.

15) 馬建農(2006), 87.

16) 『衍山海經證註』: 『上章執徐之季春下旬六日, 將入金剛山義祖·義福從焉手錄』, 上章執徐는 경진년(1820)에 해당된다.

훗날 『연산해경증주』는 周厚埵의 小嬾僊館에 들어갔다.¹⁷⁾ 주후육은 婁縣(현 상해 소속) 출신이며 대장서거이다. 건륭 연간에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서적 366종을 진상한 공로로 『佩文韻府』를 하사받았다.¹⁸⁾ 『연산해경증주』 표지에 1956년에 王謩이 논평한 묵기 2개가 적혀있다. 王謩의 원명은 王蹇이고, 호는 瓠廬이다. 그는 근대 판본학자로 蘇州圖書館 편목주임, 上海文物保管委員會 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래에 王謩의 논평을 통해 『연산해경증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본다. “이 책자는 예전에 저서에 보이지 않았다. 즉 일본의 여러 장서거나 공공 서목에 삼한(한국) 명인의 책자를 실어놓았는데, 또한 (이들 서목에) 빠져있기에 진실로 孤本이다. 서수에 東武 月汀 李璋煜이 쓴 서가 있고, 小序 다음에 新城 碩士 陳用光의 말이 있어 담녕 홍의호의 생애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어 더욱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연산해경증주』는 국내 일실본이자 현존 고본이다. 향후 홍의호 작품, 금강산 유력기, 조선·청조 간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晦軒先生詩文鈔』, 『鄭圃隱先生詩鈔』, 『栗谷李先生事略』은 조선 金秉善이 安珣, 鄭夢周, 李珥의 작품을 각각 선록 편찬하여 청 우인 陳福綬에게 보낸 책자이다. 이들 책자의 관심제에 적힌 ‘醉香山樓莊’은 김병선이 거주했던 당호이다. 김병선은 역관 李尙迪을 스승으로 모셨고 여러 차례 청나라 연경을 다녀갔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김정희의 『歲寒圖』가 한때 김병선의 집안에 소장되었는데, 이는 김정희 - 이상적 - 김병선으로 맺어진 학연에서 나왔다. 진복수는 戶部員外郎을 지냈고, 조선 姜瑋, 李建昌 등과 교유했다.

『회현선생시문초』의 표지에는 「筱農先生雅賞, 金秉善寄上」, 본문 끝에는 「筱農先生之雅囑. 安生即公之二十世孫也. 時光緒己卯冬十有一月, 後學金秉善」이 적혀있다. 筱農은 진복수의 호이고, 광서 기묘년은 1879년(고종 16)에 해당한다. 또 부록 끝에 「寄研農轉求誦安堂額書. 己卯十一月十八日, 金秉善」이라고 우인 崔性學이 誦安堂 글씨를 구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포은선생시초』에는 「光緒六年冬十有一月大雪日, 梅隱甫追題于醉香山樓楹花下, 寄奉筱農先生尊兄大人雅鑒」이라는 홍색 침지와 「爲報陳小農先生之命, 略抄鄭公詩文及事行, 并述斯文淵源之槩. 庚辰冬十月涑水金秉善謹識」이라는 묵기가 보인다. 경진년은 1880년(고종 17)에 해당된다. 『울곡이선생사략』에는 「右一篇秉竊取『擊蒙要訣』中格言採輯成詩者, 因附錄于此寄呈小農先生砭正. 梅隱生又識, 己丑陽月」이라는 묵기가 보인다. 기축년은 1889년(고종 26)에 해당된다.

17) 『衍山海經證註』 王謩 묵기.

“『衍山海經證註』, 高麗古蹟紀事詩藁本. 雲間周氏小嬾僊館藏本. 周厚埵, 字仲育, 婁縣人.”

18) 『鄭堂讀書記』 권32 <史部·來雨樓書目二卷>.

“國朝周厚埵編. 厚埵, 字仲育, 婁縣人. … 仲育於乾隆三十九年, 曾進呈書籍三百三十六種, 蒙恩賞給內府初印『佩文韻府』一部, 以示嘉獎.”

19) 『衍山海經證註』 王謩 묵기.

“是書向不經見著錄, 卽東瀛諸藏書家及公庫書目, 專載之三韓名著者, 亦付諸闕如, 洵孤本也. 冊端東武李璋煜月汀一跋, 小序後有新城陳碩士用光一跋. 得知洪澹寧身世大概, 尤爲可寶貴.”

1891년(고종 28)에 김병선이 작고하자 아들 金準學이 부친의 일대기를 담아 『金氏家傳』을 편찬하여 청조 진복수에게 보냈다. 『김씨가전』의 표지에 “小農世叔大人賜覽”이라는 홍색 첩지가 붙여 있고, 권1 끝에 김준학 자신이 평소 보고 들었던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증조군자인 진복수에게 보낸다는 흑필 목기가 적혀 있다.²⁰⁾ 여기에서 김준학이 부친을 이어 진복수와 대대로 교류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씨가전』은 김병선의 활동과 학문을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養眞齋先生禮說』은 1736년(영조 12)에 呂以鳴이 성리학의 입장에서 가례를 풀이한 수고본이다. 여이명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呂大老의 현손이다. 김천지역에서 선비들을 주도하여 養士堂을 세워 유학 진흥에 나섰고, 또 李泰夏와 더불어 향토지 『金陵勝覽』(일명 『金陵誌』)을 편찬했다.

『중국과학원도서관중문고적선본서목』 중 한국 고문헌에는 명인들의 구장본이 꽤나 보인다. 먼저 국내 명인들의 장서부터 알아본다. 『明義錄』은 정조 어람본이다. 책자에 정조가 세손 때부터 사용한 『弘齋』(백방인)와 즉위한 뒤 사용한 『萬機之暇』(주백겸인)가 찍혀있다. 1777년(정조 1)에 정조는 자신 집권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纂輯廳을 설치하고 金致仁 등에게 명하여 『명의록』을 편찬 간행하고, 또 이듬해에 『명의록』의 속편인 『續明義錄』을 편찬 간행하였다.

『日省錄』은 영조조 문신 李崇臣의 구장본이다. 책자에 이승신의 인장인 『李印/崇臣』(백방인), 『仲/道』(주방인), 『延/安』(주방인), 『世/延安/家』(백방인)가 찍혀있다. 이승신은 李明漢의 증손이며, 李賀朝의 손자이다. 淮陽鎮管兵馬節度都尉, 괴산군수 등을 지냈다. 남양주 진접읍 마명마을에 묘소가 남아있다.

『南溪先生禮說』은 영조조 문신 宋明欽의 구장본이다. 책자에 송명흠의 인장인 『宋明/欽印』(백방인), 『晦/可』(백방인), 『丞/齋』(주방인), 『華/山人』(백방인)이 찍혀있다. 송명흠은 宋堯佐의 아들이고, 李緯의 문인이다. 옥과현감, 부호군 등을 지냈다. 저서로 『櫟泉集』이 있다.

『河西先生全集』은 한말 의병장 金福漢의 구장본이다. 책자에 김복한의 인장인 『金福/漢印』(주방인), 『元/五』(백방인), 『志/山』(주방인), 『永/嘉』(주방인)가 찍혀있다. 김복한은 홍주 출신으로 형조참의, 승정원승지 등을 역임했다. 1905년(광무 9)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오적을 참수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1906년(광무 10)에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19년에 영남의 郭鍾錫과 함께 호서유림을 대표하여 유럽들의 서명을 받아 巴里長書를 발송했다.

이밖에 신하에게 하사한 때 찍은 인장이나 내사기가 적힌 책자가 다수 있다. 『宣賜/之記』(주방인)가 찍힌 책자로는 『列聖御製』, 『御製添刊大訓』 등 2종이 있다. 『열성어제』에 『康熙六十年三月二十一日, 內賜行左承旨□□『列聖御製』一件, 命除謝恩. 同副承旨臣李(花押)』라는 내사기가 적혀 있다. 강희 60년은 1721년(경종 1)에 해당된다. 내사기에 오려낸 곳의 좌승지는 權焜 또는 趙鳴鳳으로 보인다. 또 『어제첨간대훈』에 『乾隆二十年四月日, 內賜安東府使鄭棠『御製添刊大訓』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李(花押)』라는 내사기가 적혀 있다. 건륭 20년은 1755년(영조 31년)에 해당된다.

20) 『金氏家傳』 先考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君行略.

“竊念先父之右, 中朝陳公小農立言君子也. 茲述小子親耳目者以質之, 非敢以虞美加吾親云. 不孝準學泣血謹述.”

鄭案은 鄭澈의 후손이고, 영조조 문신이다. 충주 동량면 대전리에 묘소가 있다. 정실이 안동부사가 된 시점에 대해 지금까지 1756년(영조 32)으로 알려졌는데, 『어제침간대훈』을 통해 1755년(영조 31)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奎章/之寶」(주방인)가 찍힌 책자로는 『太學恩杯詩集』, 『續明義錄』, 『文苑黼黻續編』 등 3부 있다. 「奎章/之寶」(주방인)는 정조 때 처음 제작하여 사용했다. 『태학은배시집』에는 소장자가 「內賜」라는 목기를 남겨놓아 내사본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 「施命/之寶」(주방인)가 찍힌 책자로는 『寧國原從功臣錄券』, 『揚武原從功臣錄券』 등 2종 있다. 「施命/之寶」(주방인)는 교명, 교지, 교명, 공신록 등에 사용되었다. 『영국원종공신록권』에는 「六大祖寧國原從功臣二等, 姓李, 諱汝信, 字實甫, 生于萬曆癸丑, 卒于康熙戊寅, 享年八十六. 年三十四錄功, 居藍浦佛恩面東谷里沼內」라고 쓴 침지가 부착되어 있다. 『양무원종공신록권』은 金重華에게 준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 명인들의 소장품에 대해 적어본다. 『文史咀英』은 조선 趙秉龜가 청 劉喜海에게 증정한 책자이다. 책자에 조병귀의 인장 「游/荷」(주방인)와 유희해의 인장 「劉印/喜海」(백방인), 「燕/庭」(백방인), 「燕庭/臧書」(주방인), 「宗正/曾孫」(백방인), 「味經/室」(주방인)이 찍혀있다. 1829년(순조 29)에 조병귀는 동지사 서장관이 되어 연경에 들어갔고, 이듬해 숙부 趙寅永과 교분이 있는 유희해를 만났다. 귀국한 후 유희해에게 많은 조선과 일본 자료를 보내주었다. 유희해도 『海東金石苑』을 편찬할 때 조병귀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²¹⁾ 본 책자도 조병귀가 보낸 책자 중의 하나였다.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集』은 일본 妙心寺 蟠桃院에 소장되었다가 광서 연간에 일본에 출사한 傅雲龍이 구득하여 중국대륙으로 가져갔다. 책자에 반도원의 인장 「蟠桃院」(주방인), 부운룡의 인장 「雲龍/之印」(주방인), 「纂喜廬/審定古本」(주방인) 등이 찍혀있다. 부운룡은 1887년(광서 13)에 일본을 들러 이듬해까지 체류했고, 또 1889년(광서 15)에 일본을 재차 방문했다. 이때 중국에서 일실된 당 권자본 『論語』, 진초본 『新修本初』 등을 구하여 『纂喜廬叢書』의 일부로 집어넣었다.

『現行西方經』은 일본학자 稻葉君山の 구장본이다. 稻葉君山(원명은 稻葉岩吉)은 明治 말년에 高等商業學校 부속 外國語學校에서 중국어부를 졸업했고, 북경에 유학하는 도중에 1904년(명치 37)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육군 통역장교로 복역했다. 1922년에 조선사편수회 간사로 활동했고, 1932년에 京都帝國大學에서 조선사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8년에 만주국 建國大學 교수로 활동하며 만주 연구에 나섰다. 1940년에 新京(장춘)에서 돌아갔다. 사후에 그의 장서 대다수는 요녕 성도서관에 들어가고, 일부가 외부에 흘러나와 북경대학도서관, 과학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1) 『海東金石苑』 海東金石苑題辭.

“雲石小阮, 名秉龜, 字景寶, 亦有金石之好. 道光庚寅春日充使來都, 卽以金石爲贄, 修舊好焉.”

이와 경우가 좀 다르지만 『文公家禮儀節』(經406/028.b본)에는 책자 인출과 관련한 중요한 목기가 적혀있다. 앞표지 안에 흑필로 “戊辰年, 權灝元全羅監史時印得”이라고 적은 목기가 있다. 權灝元은 權文海를 지칭한다. 灝元은 그의 자이다. 1568년(선조 1) 4월에 全羅都事 겸 春秋館記注官에 임명되었고, 1569년(선조 2) 8월에 工曹正郎 겸 春秋館記注官으로 옮겼다. 목기의 무진년은 1568년(선조 1)에 해당된다. 전라도 관청 사무를 담당한 권문해는 관내 소장한 『문공가례의절』 책판을 인출해서 우인에게 보내주었다. 따라서 『문공가례의절』(經406/028.b본) 책판은 1568년(선조 1) 이전에 전라도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중종연간에서 선조연간 사이에 인출된 을해자본 『문공가례의절』과 비슷하다.

5. 결 론

오늘날 많은 국내 학자나 학술기관들이 해외 한국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국 지역은 예로부터 지리적, 역사적 관계로 많은 한국 고문헌이 유입되었다. 오늘날 중국 경내의 여러 도서관에 많은 한국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언급한 중국과학원도서관도 그 중의 한 곳이다.

중국과학원도서관은 중국 경내 자연과학 분야의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과학원에 소속된 도서관이다. 1950년에 도서관리처로 출발하여 1951년에 정식 개관하였다.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은 1993년에 청 건륭 이전에 나온 고문헌과 기타 귀중본 위주로 편찬된 책자이다. 이 책자에 열거된 한국 고문헌을 실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22종 111책, 사부가 41종 110책, 자부가 21종 83책, 집부가 59종 325책, 지부가 1종 1책 등 총 144종 630책이다. 이밖에 보통 선장본으로 분류된 한국 고문헌이 3백여 종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의 출처는 크게 2가지 경로가 있다. 한 경로는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 구장본이다. 동방문화사업총위원회는 일본이 경자배관으로 중국에 세운 친일본 학술기관으로 1926년에 북경에 인문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북경인문과학연구소는 한국 고문헌을 비롯한 중문 고문헌을 다량으로 수집했는데, 훗날 소장본이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부사년도서관과 중국 과학원도서관으로 각각 분산되어 들어갔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 중 북경인문과학연구소 구장본 한국 고문헌은 총 130종이다. 다른 한 경로는 중국 과학원도서관이 1956년부터 1963년 사이 북경, 천진 등지에서 구입한 한국 고문헌이다. 총 14종이다.

『중국과학원도서관장중문고적선본서목』에 분류된 한국 고문헌 가운데 서품이 높은 책자들이 다수 보인다. 1820년(순조 20)에 홍의호가 금강산을 읊은 기행시편에다 아들 홍희복이 주석을 붙인 수고본 『衍山海經證註』, 1891년(고종 28)에 김준학이 부친 김병선의 전기를 지어 청조 진복수에게 보낸 『金氏家傳』, 1736년(영조 12)에 여이명이 가례를 풀이한 『養眞齋先生禮說』 등은 국내에서

일실된 책자이다. 정조 어람본 『明義錄』, 이승신 구장본 『日省錄』, 송명흠 구장본 『南溪先生禮說』, 김복한 구장본 『河西先生全集』, 내사본 『列聖御製』, 『御製添刊大訓』, 『太學恩杯詩集』, 『續明義錄』, 『文苑黼黻續編』, 『寧國原從功臣錄券』, 『揚武原從功臣錄券』, 조선 조병구가 청조 유희해에게 준 『文史咀英』, 청 부운룡이 일본열도에서 구한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集』, 일본 稻葉君山 구장본 『現行西方經』 등은 명인들의 구장본이다. 그리고 『文公家禮儀節』(經406/028.b본)은 권문해가 전라도에서 인출한 책자이다.

<참고문헌>

「衍山海經證註」
「鄭堂讀書記」
「衍山海經證註」
「金氏家傳」
「海東金石苑」

朴現圭, 『臺灣公藏韓國古書籍聯合書目』,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1.

北京人文科學研究所編,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目錄』, 北京: 民國27年排印本.

北京人文科學研究所編, 『北京人文科學研究所藏書續目』, 北京: 民國28年排印本.

中國科學院圖書館編,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北京: 科學出版社, 1993.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eijing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General Committee of Oriental Culture. 1938. *The Catalogue of Rare Books in the Library of Beijing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General Committee of Oriental Culture*. Beijing.

Beijing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General Committee of Oriental Culture. 1939. *The Catalogue of Rare Books in the Library of Beijing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General Committee of Oriental Culture*. Beijing.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1993. *The Catalogue of Rare Books in th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Beijing:

書誌學研究 第84輯(2020. 12)

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Park, Hyun-kyu. 1991. *The Catalogue of Rare Books in the Library of Taiwan*. Taipei: Wenshizhe
Publisher.